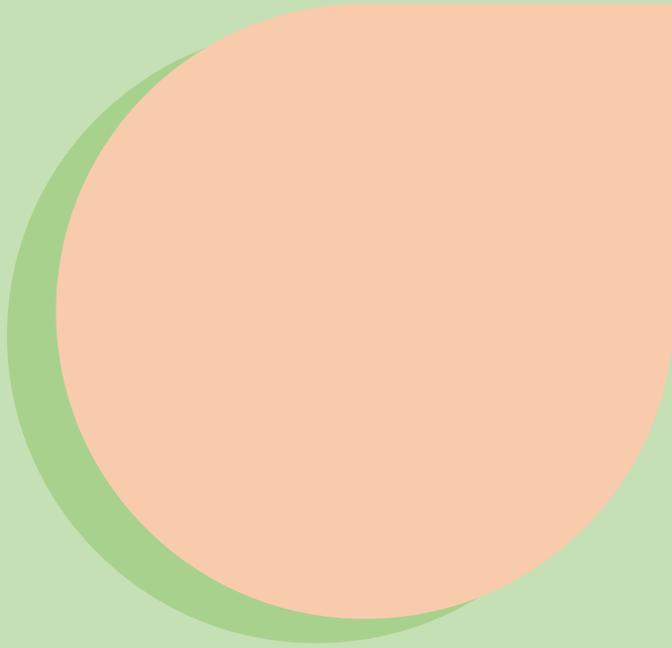


Literature  
solution

| LINE



Edit. IRO

2022 수능 국어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다. 재예(才藝)가 당대에 빼어났다.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헌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 집 앞에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 외쳤다. 소저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 유모에게 주어 보냈다.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해,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놀라 화내며 때리자 장사가 울며 말했다.

“거울이 이미 깨졌거늘 때려 무엇 하세요? 저를 노비로 삼아 거울 값을 갚게 해 주세요.”

유모가 들어가 이를 승상께 아뢰니 허락하였다.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破鏡奴)라 짓고 말 먹이는 일을 시켰다. 말들은 저절로 살찌 여윈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그에게 주었다. 이에 파경노는 말들을 풀어놓고 누워만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자 보는 자마다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승상 부인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부 일도, 천한 일도 맡기지 마세요.”

승상이 옹계 여겨 그 말을 따랐다. 이전에 승상은 동산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파경노에게 이를 기르게 했다. 이때부터 동산의 화초가 무성하며 조금도 시들지 않아, 봉황이 쌍쌍이 날아들어 꽃가지에 깃들었다.

열흘이 지났다.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파경노는 승상을 뵈고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노모를 뵈지 못했으니, 노모를 뵈고 올 말미를 주십시오.”

승상은 닳새를 주었다. 소저는 파경노가 귀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꽃이 난간 앞에서 웃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네.”라고 시를 지었다. 파경노는 꽃 사이에 숨어 있다가,

“새가 숲 아래서 우는데 눈물 보기 어렵네.”라고 시로 화답했다. 소저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다.

[중략 부분 줄거리] 중국 황제는 신라 왕에게 석함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 명한다. 신라 왕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업에게 과업을 넘긴다.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 파경노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왜 우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모두 말해 주자, 자못 기쁨을 띠며 꽃가지를 꺾어 외청으로 갔다.

소저가 슬피 울다가 문득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속으로 놀라 창틈으로 엿보니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소저가 이상히 여겨 묻자,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그대가 이 꽃을 보고 싶다 하여 그대를 위해 가져 왔소. 시들기 전에 받아 보시오.”

소저가 한숨을 크게 쉬니, 파경노가 위로하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오. 근심치 말고 꽃을 받으시오.”

소저가 꽃을 받고 부끄러워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소저는 파경노의 말을 괴이히 여겨 승상께 말했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神人)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상이 말했다.

“너는 어찌 쉽게 말하느냐? 만약 파경노가 할 수 있다면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시를 짓지 못해 이 석함을 나에게 맡겼겠느냐?”

소저가 말했다.

“뱀새는 비록 작지만 큰 새매를 살린다 합니다. 그가 비록 노둔하나 큰 재주를 지니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어서 파경노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을 고했다.

“만약 그가 시를 지을 수 없다면 어찌 그런 말을 냈겠습니까? 원컨대 그를 불러 시험 삼아 시를 짓게 하소서.”

승상이 파경노를 불러 구슬리며 말했다.

“만약 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짓는다면 후한 상을 줄 것이며,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 주겠다.”

파경노가 거절하며 말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소저가 이 말을 듣고 승상에게 말했다.

“살고 싶고 죽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네가 만약 시를 짓는다면 내 마땅히 사면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식한 이였으나 그 명을 따랐습니다. 하물며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지만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그를 겁박하시면 어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 복종치 않겠습니까?”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2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⑤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2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 ②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④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고운전」은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 기지, 당당함을 보인다. 또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한다. 이는 당대 독자들이 원했던 새로운 영웅상을 최치원에 투영하여 작품 속에서 구현한 것이다.

- ① 아이가 흰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물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⑤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최고인전** 」 작자 미상

빠른 정답 22. ② 23. ② 24. ⑤

□ 22

정답 설명 : ②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와 ‘승상이 그럴듯하다 여기고 파경노를 불렀다.’를 통해 승상 나업과 소저는 대화를 통하여 석함 속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파경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설명

- ①: 지문에는 특정 인물의 꿈에 대한 내용을 제시되지 않았다.
- ③: 특정 인물이 우스꽝스럽게 표현되어 희화화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지문 속에 반전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
- ④: 본 지문에서 서술자는 상황을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할 뿐,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며 개입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참고로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은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다.
- ⑤: 시간의 역전이라 말하려면 지문 중간에 과거 장면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ㄱ	ㄷ	ㄹ	ㅇ
①	꿈...?		
②	대화는 당연히 있었고, 석함 관련 문제로 소저가 승상에게 파경노에게 부탁해보자 했으니 해결 방안 제시도 맞겠지.		
③	웃기게 표현된 인물도 없고, 딱히 반전도 못 느꼈는데..		
④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숨겨졌던 내용이 드러난 부분은 없지 않나? 서술자 개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⑤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은 없었어		

✓ Check Line

1) 희화화

- 어떤 인물이나 대상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 또는 그렇게 만듦.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 종가 」

- 위 시에서 신주는 원래 종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이지만,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고 제삿날이면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표현은 권위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신주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묘사하는 희화화에 해당한다.

2) 서술자의 개입

- 간단히 말해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한다.  
- 매우 까다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평가원에 이의제기도 몇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하여 평가원도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서술자가 개입하는 방식과 양상은 다양합니다.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가치판단, 감정표출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히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발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크게 네 가지이다.

- 편집자적 논평 (=가치 판단)  
: 놀부 이놈의 거동 보소, 누가 아니 칭찬하랴, 거북이 착할세
- 감정 노출: 이 아니 슬플쏘냐
- 독자에게 말 걸기: 놀부 거동 좀 보소
- 서사 흐름 끊기: 차설, 각설
- 이 외에도 요약적 제시와 미래 사건 제시도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으나 서술자의 개입을 물어보면 일단은 위에 네 가지를 먼저 찾도록 합니다.

+ α **샘's** 잔소리

- 서술자의 개입은 문제를 풀 때 찾으려면 매우 까다로워. 그러니까 미리 서술자의 개입을 잘 공부해 두었다가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갑자기 서술자가 전개 또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아닌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면 미리 체크해두자!

□23

정답 설명 : ②

최고운은 소저를 만나기 위해 고의로 거울을 깨뜨리고 거울값을 갚는 것을 핑계로 소저의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의미에서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승상 부인은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동산 화초가 승상 부인으로부터 파경노가 인정 받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오답 설명

- ①: 소저는 거울을 유모에게 주어 보내면서 유모 뒤를 따라가서 고운(아이)과 서로 얼굴을 보게 된다. 한편, 나업의 사정을 들은 고운은 벽에 걸린 거울에 그림자를 비추면서 소저에게 존재감을 드러낸다.
- ③: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으나 파경노가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를 통해 소저가 동산의 꽃에 파경노 때문에 접근하게 어렵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서로 접촉하여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교감이라고 한다. 소저의 시에 파경노가 시로 화답한 것은 서로 접촉한 것도 맞고 감정을 서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감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소저가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신인의 기운이 있어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한 것은 파경노가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짓는 과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 ⑤: 석함 속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시를 지으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나업은 '집으로 돌아와 석함을 안고 통곡했다.'고 하였으므로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소저 또한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로 인하여 '슬피 울'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시는 파경노가 시를 지으므로 소저의 슬픔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ㄱ	ㄷ	ㄹ	ㅇ
①	소저가 유모에게 거울을 주어 보내고 뒤따라 가서 아이를 만났고, 벽에 걸린 거울로 소저가 파경노의 그림자를 봤으니 맞겠지.		
②	선지 앞부분은 맞는 말인데... 동산 화초로 인해 파경노가 부인에게 인정을 받은 내용은 없었어		
③	소저가 파경노 보기 부끄러워서 동산에 못 간 건 확실하고.. 꽃을 들고 간 것은 당연히 마음을 전달하려 한 거라고 봐야겠지?		
④	뭔가 감정을 나누는 게 교감 아닌가? 그럼 마음을 담아 쓰는 시도 당연히 교감을 위한 것이겠고, 소저는 파경노에게 나업의 과업을 맡기자고 했으니 해결을 기대한 것이겠지.		
⑤	나업은 시 때문에 통곡했고, 파경노는 이 시를 지어 슬퍼하는 소저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었겠지.		

+ α 쌤's 잔소리

- ③, ④ 선지에 '자신의 마음을 전달', '교감'과 같은 표현은 문학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아무 생각도 없이 주는 경우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문학에서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당연히 그 인물의 마음이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그러니 위와 같은 표현들은 자비롭게 처리하도록 하자!

□20

정답 설명 : ⑤

파경노는 나업의 과업으로 슬퍼하는 소저에게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는 나업의 시 짓는 과업을 파경노가 도와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막상 나업이 파경노에게 시를 지어 주면 후한 상을 준다고 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는 파경노가 진짜로 원하는 보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파경노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하는 바 없이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보상을 이유 승상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

오답 설명

- ①: <보기>에서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아이(최고운)가 험 옷으로 일부러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주인공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주인공은 초월절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선관들(초월절 존재)이 물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주인공이 초월절 존재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주인공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파경노가 기른 화초가 시들지 않고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당연히 파경노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④: 파경노는 소저가 부끄러움 때문에 동산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승상에게 노모를 뵈고 오겠다고 하고 사실은 동산에서 소저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따라서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파경노)이 원하는 바(소저와의 만남)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소저 만나려고 흰 옷으로 바꿔 입고 장사로 변장하는 건 치밀하다고 볼 수 있지.
②	선관들은 초월절 존재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지
③	화초가 시들지 않고 봉황이 날아드는 건 신이한 능력 맞지
④	말미를 얻기 위해 노모를 핑계 삼은 거는 기지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지
⑤	파경노의 거절은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느낌보다는 '보상이 있어도 저는 시 못 지어요.'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거절했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 선지 판단의 가능 세계

⑤: 지문만 보면 분명히 파경노가 나옴이 제안한 보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파경노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나옴의 과업이 국가의 과제인 것도 맞으므로 옳은 선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것이다. 파경노가 나옴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보상은 없어도 돼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이런 의도를 담고 있지는 않다. 지문에 파경노가 왜 제안을 거절하였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절의 목적이 국가의 과제 해결이 아님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고, 보상을 필요 없었던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 α 샘's 잔소리

- ⑤ 선지는 평가원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깊이의 독해를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야. 단순히 키워드만 빠르게 훑어 읽어서는 명확하게 선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소거법으로 풀어야 했을거야. 항상 말하지만 문장이 짧고 있는 의미까지 생각을 해봐야 해. 여자친구가 아무거나 먹자 했다고 정말 아무거나 먹으러 가면 안 되겠지? 독해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 일종의 눈치가 있어야 해. 문장 속 문자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장이 짧고 있는 진짜 의미까지 생각이 돌아야 할 거야. 다시 강조할게. 독해는 읽고 생각하는 과정까지를 의미하는거야!